

올 최고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은?

삼성전자 에어컨·대우일렉 세탁기

광주에서 생산되는 삼성 에어컨과 대우일렉트로닉스 드럼세탁기가 최고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으로 선정됐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삼성전자가 AIXC 4H100B3/RIXB HF035B2 모델 에어컨 등 4개 품목, 9개 제품을 최고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으로 선정, 발표했다.

에어컨은 10kW 이상 17.5kW 미만 급에선 삼성전자가 AIXC4H100B3/RIXB HF035B2 모델 에너지 효율이 가장 우수했고, 4kW 이상 10kW 미만에서도 삼성전자의 AF-V15HGA 모델이 최고 효율을 기록했다.

4kW 미만에선 일본 도시바가 생산하고 캐리어가 수입한 2.5kW급 RAS-07SKCV-K이 최우수 제품으로 뽑혔다.

드럼세탁기는 대우일렉트로닉스 DWD-700 WNM, 식기세척기는 중앙매직 DWA-1650P(6인용 이하), 이탈리아 일렉트로룩스 FAVORIT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해 구입하도록 제품에 등급(1~5등급)라벨을 표시하고, 최저 소비효율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대상 품목은 에어컨 등 22개 전기 사용 제품다.

60870(6인용 초과) 등이 각각 최고 에너지 효율을 기록했다.

냉장고 가운데는 500ℓ 이상 급에선 LG전자 R-T758VHHW와 미국 월풀이 생산하고 일렉트로닉스가 수입한 5ED5FHKXVT가 최우수 제품으로 뽑혔고, 500ℓ 이하에선 하라웰스텍의 HFD-189LC가 최고 효율 제품으로 선정됐다.

■ 에너지효율 최우수 제품현황

구분	제품규격	업체명	모델명	용량	월간소비전력량 (kWh/월)
냉장고	500ℓ 이상 (디스펜서 또는 홀바 있음)	LG전자	R-T758VHHW	751.9ℓ	32.9
	500ℓ 이상 (디스펜서 또는 홀바 없음)	일렉트로룩스	5ED5FHKXVT	704.8ℓ	51.6
	500ℓ 미만	하라웰스텍	HFD-189LC	177.9ℓ	22.3
에어컨	10kW 이상 17.5kW 미만	삼성전자	AIXC4H100B3/RIXBHF035B2	10.0kW	378.7
	4kW 이상 10kW 미만	삼성전자	AF-V15HGA	6.0kW	203.8
	4kW 미만	캐리어	RAS-07SKCV-K	2.5kW	106.6
드럼세탁기	7kg 이상~15kg 이하	대우 일렉트로닉스	DWD-700WNM	7kg	276.7*
	6인용 이하	중앙매직	DWA-1650P	6인용	16.6
식기세척기	6인용 초과	코야인 쿼플레이티드	FAVORIT60870	12인용	32.0

* 세탁기는 1회 세탁소비 전력량(kWh)

지경부는 냉장고와 에어컨, 드럼세탁기를 최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때 가구당 연간 10만7천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국가적으로는 연간 45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내년에는 전기밥솥과 가정용 보일러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고 에너지효율 제품을 선정하고,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명태 싸게 팝니다” 러시아산 명태 어획쿼터가 4만톤으로 2배 늘어난 것을 기념해 29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열린 원양선사 수산물 직거래전에서 손님들이 러시아산 명태를 공짜로 받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원양선사 직거래 수산물전’을 열어 명태, 오징어, 참치 등 수산물을 최대 25% 할인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1억 넘는 고액 급여자 10만6673명

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액 급여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1천400만명 가운데 근로소득 1억원을 넘는 급여자는 전체의 0.76%인 10만6천673명으로 나타났다. 역대 연봉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연봉자는 지난 2006년 8만

3천844명(0.67%), 2007년 9만2천156명(0.69%)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왔다. 1인당 급여가 가장 많은 업종은 금융이었다. 금융, 보험업 종사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5천300만원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다음으로 부동산업(3천190만원)과 제조업(2천67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천51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퇴직자 256만5천595명 중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자는 전체의 86.7%인 222만4천755명이었다. 국세청은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직장 이동이 잦아지고 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이 상시 인력 구조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은행 대출 가산금리 낮춰라”

금융당국 공시 의무화 추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조달 비용 감소

등 영업 여건의 개선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높은 가산금리를 붙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조달 비용과 가산금리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조달비용과 고객 신용도, 영업이윤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붙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가산금리

수준을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은행 청구를 일일이 찾아가야만 그 수준을 알고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은행들의 조달 비용 감소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만큼 은행들은 적정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이 내년 1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 직원 전용 신용대출 금리를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0.5%포인트 내리기로 한 것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한해 1만원 내는 서민용 상해보험 나온다

지식경제부는 우체국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 서민 상해보험(Micro Insurance) 상품을 내년 1월4일부터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차상위 저소득층 1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연간 1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정부가 2만5천 원을 보조한다. 1년 기한의 소멸성으로 사망 시

최고 2천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되고 상해시엔 입원비의 90%와 통원치료비 전액이 보장된다. 가입대상은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만원(직장 가입자 2만5천 원) 이하이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s). It features a logo with a horse and rider, and text promoting quality hearing aid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is provided: 본점 (063) 227-994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송정점 (063) 227-9970, 익산점 (063) 851-2422.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agency. It features a house illustration and text promoting services like '부동산' (Real Estate) and '주택' (Housing). It includes phrases like '안락주택' (Peaceful Home) and '안락주택' (Peaceful Home) with a 70% discount. Contact information for '부동산' is provided: 10621511-0444.

Advertisement for '트라이슈머 시트방수' (Triesmer Sheet Waterproofing). It features a person holding a sign and text promoting waterproofing services. It includes phrases like '하수없는 트라이슈머 시트방수' (Waterproofing with Triesmer Sheet). Contact information for '트라이슈머' is provided: 10621511-0444.